

# 융복합시대 에코부머세대의 직업 스트레스 궤적과 예측요인

손정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Job Stress Trajectories of the Eco-boomer Generation in the Convergence Era and Predicting Factors

Jung-Min S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요 약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융복합시대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을 추정하여 예측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직업 스트레스 정도와 그 변화 따라서 개인의 경험하는 직업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 중심이 될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 개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한 종단연구로서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 7차년도 데이터를 잠재성장모형(LGM)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 예측요인을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 에코부머 세대의 경우 초기 측정시점이 대부분 학생에 해당되어 직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았으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직업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그 변화의 예측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에코부머 세대, 직업 스트레스, 잠재성장모형, 융복합시대, 자아존중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basic data to be used in social welfare intervention for relieving psychological burdens caused by job stress in the eco-boomer generation that will be the center of Korean society in future, by estimating job stress change trajectories of the eco-boomer generation in the convergence era, figuring out predicting factors and examining job stress factors that individuals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job stress and the changes. This is a longitudinal study using secondary data and for analysis, the Latent Growth Model(LGM) was applied to the 1st year to the 7th year Korean Welfare Panel Data. Self-esteem was one of job stress predicting factors of the eco-boomer generation. Since most of eco-boomers were students in the early measurement period, the level of job stress was low, but over time, the burden of job increased by grada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y providing an empirical basis for predicting factors of job stress changes of the eco-boomer generation to understand job stress in the eco-boomer generation.

**Key Words** : Echo-Boomers, Job Stress, LGM, Convergence Era, Self-Esteem

Received 2 December 2016, Revised 3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author: Jung-Min Son(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mail: sjmin2@kwidimail.re.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세계는 다양한 지식이 하나로 모이는 ‘융복합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1] 에코부머 세대들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향후 20년간 정부, 기업, 사회를 지배할 강력한 집단이라 평가되고 있는 에코부머 세대는 베이비붐(Baby Boom) 세대가 낳은 자녀 세대로 후기 베이비부머 세대를 에코부머(echo boomer: 1979-1992년 출생) 세대라 한다. 이들은 융복합시대를 살아가면서 SNS를 활용한 연결고리를 형성해 경제, 정치 등 사회 흐름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 하였으며, 또한 한국 사회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과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다[2].

실제 우리나라 에코부머 세대의 경우 전체 75.8%가 2년제 이상 대학교육을 받는 등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고용율은 71.2%로[3] 이들 중 대다수는 비 정규직 및 시간제 일자리 등 불안정한 취업 상태 즉 안정적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 경제위기, 국내경기침체 등 경제난 속에서 뚜렷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4]. 이와 같은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나, 우리나라 에코부머 세대의 경우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에코부머 세대 실업자들의 대부분은 고학력자들이 라는 것에 있다. 이들의 학력수준에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가적 경쟁력 상실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수준이다[5]. 안정적인 사회진입의 실패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또한 각 개인의 자아존중감 약화, 심리적 좌절 상태로 이어지며,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낙인효과(scarring effect)가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될수록 그 효과는 커지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6].

선행연구에 의하면 에코부머 세대의 경우 실업으로 인하여 분노, 좌절, 불안,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실업의 장기화 됨에 따라 경제적 자립능력의 저하, 가족 관계에서의 상호작용 회피,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감을 형성한다고 보고하고 있다[7]. 또한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변화를 경험한 에코부머 세대의 경우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던 사람들 보다 취업이후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9]. 이와 같이 동일한 수준의 직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심리사회적 요인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각 개인의 직업 스트레스 반응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심리적 부담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직업 스트레스 정도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예측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에코부머 세대의 취업 현황과 관련된 통계자료들을 발표되고 있으나, 시계열 종단 자료를 활용한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을 추정하여 예측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심리적 부담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인 직업 스트레스 정도와 그 변화 따라서 개인의 경험하는 직업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 중심이 될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 개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한 종단연구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차년도(2006년) ~ 7차년도(2012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표본추출 방법으로 모집단에 대한 보조정보를 얻기 위하여 2006년 국민 실태조사에 참여한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 추출을 통해 추출한 후, 소트계층별로 층화하여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로 에코부머 세대로 분류되는 1979년 출생자부터 1985년 출생자로 1-7차년도 조사를 거치는 동안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583명을 연구대상자로 SPSS for Window 21.0 및 Amos 22.0 Program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모델검증을 위한 부합지수들의 계산과 모수치 추정은 완전최대우도추정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고자 한다.

### 3. 연구결과

####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 583명 가운데 남성은 238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중 40.8%에 해당하며, 여성은 345명으로 59.2%에 해당된다. 일반가구는 483명으로 82.8%이며, 저소득층 가구는 100명으로 17.3%로 나타났다. 대학졸업 이상(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포함)인 경우는 410명 70.3%에 해당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는 173명 29.7%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중 478명 82.0%는 미혼인 상태이며, 7차년도 조사결과에서 411명 70.5%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출생연도는 1981년 이었다. 가구 경상소득의 경우 1차년도 시점에서는 3,400만 원이었으며, 7차년도 시점에서는 5,61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 상승 및 취업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006year)

	N(%)		N(%)
Total	583(100.0)	Total	583(100.0)
male	238(40.8)	general-income households	483(82.8)
female	345(59.2)	low-income households	100(17.2)
middle school	9(1.5)	married	101(17.3)
high school	162(27.8)	bereavement	1(0.2)
college	141(24.2)	divorce	3(0.5)
university	261(44.8)	single	478(82.0)
graduate school	8(1.4)	(18years older)	
birth year		mean(S.D)	1981(1.87112)
ordinary income(2006년)(10,000won)		mean(S.D)	3,400 (2,338)
ordinary income(2012년)(10,000won)		mean(S.D)	5,610 (3,502)

#### 3.2 직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확인

직업에 관한 스트레스 수준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 왔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모형의 3가지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하여 가장 적합한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절차로 각각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을 직업 스트레스의 변화궤적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선형변화모형이 비교적 적합한 모형으

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직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에 관한 모형으로 TLI(중분적합지수)가 .864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9을 넘지 못하였으나, CFI(중분적합지수)과 RMSEA(절대적합지수)에서 기준값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본 모형이 비교적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LGM of Job stress: absolute fit index

		$\chi^2(df)$	P	CFI	TLI	RMSEA
Job stress	unconditional model	88.468(20)	.000	.861	.805	.077
	conditional model	<b>47.327(14)</b>	<b>.000</b>	<b>.932</b>	<b>.864</b>	<b>.054</b>
	quadratic curved model	58.165(21)	.000	.924	.899	.055

다음으로 선택된 선형변화모형을 이용하여 변화궤적을 추정하였다. 직업 스트레스의 초기치 평균은 2.832, 변량이 .100로 모두 유의미했다. 이는 직업 스트레스는 초기값에서 개인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처음 측정시점에서 직업 스트레스가 초기치에서 많은 개인 차이를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변화율의 평균은 -.029, 변량은 -.015로 모두 유의미했다. 이는 에코부머세대의 직업 스트레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완만해지는 추세를 보이며, 이러한 변화의 정도에서 개인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최초 측정시점에서 스트레스수준의 초기치가 높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초기치가 낮은 경우는 스트레스수준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이 유의미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개인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개인 차이를 주요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수의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직업 스트레스를 주요하게 예측하는 예측요인을 투입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Table 3> Trajectory of Job stress: tendency

		Parameter	mean(SE)	variable(SE)
Job stress	Intercept		2.832(.034)***	.100(.067)
	Slope		-.029(.007)***	-.015(.004)***
	Intercept-Slope covariate		.031(.014)*	

### 3.3 직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에 대한 예측요인의 확인

에코부머세대의 직업 스트레스는 점차 완만한 추세를 보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의미한 개인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직업 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을 주요하게 예측하는 요인들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예측요인은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결혼상태, 소득,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등이다.

모형의 적합도는 직업 스트레스 변화궤적에 관한 모형으로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redictors of Job stress : absolute fit index

	$\chi^2(df)$	CFI	TLI	RMSEA
Job stress	70.808(48)***	.952	.905	.037

다음은 직업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Table 5>.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 수준을 설명하는 예측요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직업 스트레스 수준의 초기값과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으로 성별, 소득, 자아존중감, 우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인 경우 직업 스트레스의 초기값이 남성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 수록 직업 스트레스가의 초기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직업 스트레스의 초기값은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감이 높을수록 직업 스트레스의 초기값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코부머 세대의 초기 측정시점이 20대 초 중반에 해당되어 이 시기의 경우 대부분 에코부머 세대의 학생 이거나, 사회초년생, 미취업자 인 경우가 많아 직업 스트레스가 소득, 자아존중감, 우울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 있다. 자아존중감 초기값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지만 변화율의 경우 정적 관계를 나타나 이는 자아존중감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가 가파르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 스트레스를 변화 시키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을만큼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redictors of Job stress: tendency

	$\beta$ (s)	$\beta$ (ns)	S.E.	p
income→Intercept	.299	.438	.088	***
income→ Slope	-.393	-.036	.020	.076
gender→Intercept	-.190	-.214	.068	.002**
gender→Slope	-.007	.000	.016	.976
married state→Intercept	.050	.018	.022	.409
married state→Slope	.137	.003	.005	.536
self esteem→Intercept	-.322	-.353	.069	***
self esteem→Slope	.817	.056	.016	***
depression→Intercept	.243	.214	.056	***
depression→Slope	-.178	-.010	.013	.449

## 4. 결론

본 연구는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을 추정하고, 직업 스트레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점을 살펴보면,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 예측요인을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에코부머 세대의 경우 초기 측정시점이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에 해당되어 이 시기의 경우 대부분 에코부머 세대의 경우 초기 측정시점이 대부분 학생에 해당되어 직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덜했으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졸업 이후 직업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규칙한 이동, 열악한 주거환경, 투자한 노력이나 자질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환경의 요구, 역할 기대에 대한 좌절감, 공식적 역할 참여의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등과 같이 생활환경이나 여건과 같은 스트레스가 지속될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심화된다고 밝히고 있는 Wheaton(1983)[10]과 Pearlin(1989)[11], Limk 외(1989)[12]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개인의 구조적 지위, 즉 직업 상태가 개인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회적 스트레스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임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국내연구에서는 에코부머

세대에 대한 부족한 관심으로 에코부머들의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어진바가 없으며, 최근 OECD[13], ILO[14],[15]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이슈가 되어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그 변화의 예측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일회적인 횡단연구에 비해서는 동일한 대상자에게 여러 차례 반복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에코부머 세대의 직업 스트레스의 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7개연도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후 시점에 대한 변화궤적을 명확하게 추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둘째, 에코부머들이 경험하는 직업 스트레스는 다양하기에 예측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변수가 많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지 못한 변수의 다수는 패널 구축과정에서 신규로 투입된 변수들로 1차년도 자료부터 활용하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향후 이러한 제약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분석노력이 필요하다.

## REFERENCES

[1] Yejong lee·Sungjoo Park, “The Effects of Strength Note Program on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in Convergence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7. pp.223-228. 2015.

[2] Min Jin. “What to dominate governmental organizations’ Nathaniel Millet generation, “who are they?.” SAPA News & Platform. vol. 16. No. 2. pp. 5-8. 2010

[3] Donga news. 2012. 08.03(fri) Press release. 2012

[4] Son, Jungmin, “Predictors on Psychosocial Function for the Echo Boomers Generations” Dongguk University. 2015

[5] Oh eunjin·Kim sohyun. “Occupation movement and the labor market, job changes of the younger women.” KLoWF: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2014

[6] Lim miri.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efficiency study based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echo boomer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2

[7] Hoon Koo Lee. “Psychological Impact of Economic Depressio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4. No. 1. pp. 3-13. 1998

[8] Chaelin Karen Ra·Hyunkyung Lee. “Employment Transitions and Suicide Ideation among Echo Generatio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Vol.23 No.4, pp. 370-376. 2013

[9] Yejong lee·Gumju Choi. “The Effect of Korean Adult’s Mental Health on Qpl(Quality of Life)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1. pp.321-327. 2013.

[10] Wheaton, B.. “Stress, Personal Coping resources, and Psychiatric symptoms: An investigation of interactive model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4. pp. 208-229. 1983

[11] Leonard I. Pearlin. “The Sociological Study oh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0, No. 3, pp.241-256. 1989.

[12] Link, B. G., and Dohrenwend, B. P. “The Epidemiology of Mental Disorder. pp. 102-127. in Howard E. F., and Levine, S.(edi.)” The Handbook of Medical Sociology, Englewood Cliff, N. J. Prentice-Hall College. 1989

[13]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14] ILO, “2009 Global Employment Trends” 2009.

[15] ILO, “2013 Global Employment Trends” 2013.

손 정 민(Son, Jung Min)



· 2008년 2월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5년 8월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여성복지  
 · E-Mail : sjmin2@kwidmail.re.kr